

새 교육과정의 이념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

김중신*

〈 차 례 〉

- I. 서론
- II.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II.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념을 위한 쟁점
 - 1. 주체인가 객체인가 - 개별성과 보편성
 - 2. 지식인가 탐구인가 - 개념성과 활동성
 - 3. 기능인가 문화인가 - 효율성과 내면성
 - 4. 위계화인가 범주화인가 - 고정성과 유동성
- IV. 결론

I. 서론

일선 학교의 '문학교육'을 개탄할 때 자주 거론하는 일화가 있다. 시인 신경림씨가 평소에 친했던 어느 교사의 초청으로 지방의 한 중학교를 찾아갔다. 수업이 끝난 후 그 학교의 교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신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교사들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참고서에 나오는 국어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이었다. 중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신씨의 작품 '가난한 사랑 노래'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로 시작하는 시에 대한 객관

* 수원대학교.

식 문제 10개를 신씨가 즉석에서 풀었다. 결과는 겨우 30점. 세 문제밖에 맞히지 못한 것이다. 시인은 분개를 했고 교사들은 혀를 찼다. 자신이 쓴 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기도 제대로 못 풀었으니 교육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다. 이는 목수가 책상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목수가 책상을 만들려고 할 때 머리 속에 미리 만들고자 하는 책상을 그려 놓는다. 목수의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책상을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 책상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평가'이다. 목수의 머리에 만들고자 하는 책상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 책상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인도 풀 수 없는 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필경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념'의 일반적인 뜻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이다. 플라톤이나 칸트에 기대게 되면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 개념(이데아)'이라고도 지칭된다. 교육과정의 '이념'을 구축한다고 할 때에는 전자의 뜻에 가까운 듯하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이념'을 두루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후자에 의한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념이란 어느 누구에 의해, 혹은 특정 권력에 의해서 설정된,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이념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가 합의해야 할 성격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학문중심의 공급자가 설정한 과도한 내용 암기와 맹목적 활동이나 난이도만 따지는 평가만으로는 지식문화시대를 대비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

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차 교육과정은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혁의 핵으로서, 종전(1차~6차)과 같은 단순한 교육내용의 개정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과정 패러다임 자체의 혁신적 변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평균적 인간'에서 '독창적, 창의적 인간'을 양성함이며, 교육방법은 교사중심 지식 전수교육에서 학습자 주도형 탐구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도 '단편적 암기지식 지필평가에서 '다면적 사회 적응지식 수행평가'를 택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성공적인가? 유감스럽게도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 않다.

첫째, 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 교원들은 학교위기 현상, 사교육비 증가 등 당면 교육현안 문제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전면수정, 시행 보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¹⁾ 또한 아직 이전의 교육과정이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 입안자에 의해서도 ① 배워야 할 내용과 배우고 있는 내용과의 괴리, ② 교육내용의 과다와 높은 난이도, ③ 학기당 이수 과목 수의 과다, ④ 교육내용의 획일화, ⑤ 획일적 교육과정 및 획일적 교과서 관(觀), ⑥ 학교 교육과정의 미비, ⑦ 주기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발 정책, ⑧총론과 각론의 괴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허정철, 2004: 287-306).

1) 2001. 6. 1 전교조는 제7차 교육과정을 거부하는 고교 대표자 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는 교총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2004년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평가는 공급자, 즉 교육계에서 제기된 자기 진단의 성격이 강하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7차 교육과정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구축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전략회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이전에 출시된 제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소비자(학생, 학부모, 사회)의 품질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경우 ‘관동별곡’과 ‘산정무한’이 제재로 채택되고 있다. ‘관동별곡’은 해방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산정무한’은 4차 교과서 이후에 다시 등장한 소재이다. 이 두 작품에 대한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그리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2001년에 실시한 문학교사의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작품 선호도를 보면 고전 문학에서는 ‘홍길동전’이, 현대 문학에서는 ‘무소유(법정)’이 1위를 차지하였다.²⁾

〈표 1〉 고전 문학 작품별 선호도(복수 응답)

순위	고전시가		고전수필		고전소설	
	작품	반응수	작품	반응수	작품	반응수
1	청산별곡	118	단군신화	250	홍길동전(허균)	296
2	제망매가(월명사)	115	서포만필(김만중)	169	양반전(박지원)	288
3	춘향가	95	한중록(혜경궁 홍씨)	155	춘향전	228
4	시집살이 노래	91	규중 철우 쟁론기	145	허생전(박지원)	200
5	가시리	88	어우야담(유몽인)	111	구운몽(김만중)	173
6	바리데기	57	동명왕편(이규보)	111	호절(박지원)	164
7	송인(정지상)	52	화왕계(설총)	109	홍부전	111
8	관동별곡(정철)	51	일야구도하기(박지원)	107	사씨남정기(김만중)	97
9	동짓달 가나긴 밤을	50	동명일기(의유당 김씨)	82	이생규장전(김시습)	87
10	속미인곡(정철)	45	구토설화	58	박씨전	73

2) 자세한 분석 내용은 김중신·염은열·고지운 (2001) 참조할 것.

〈표 2〉 현대 문학 작품별 선호도(복수 응답)

순위	현대수필		현대시		현대소설	
	작품	반응수	작품	반응수	작품	반응수
1	무소유(법정)	265	풀(김수영)	146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조세희)	155
2	방망이 깎던 (윤오영)	134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11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113
3	먼곳에의 그리움(전혜린)	93	귀천(천상병)	83	동백꽃(김유정)	108
4	딸각발이 (이희승)	85	님의 침묵 (한용운)	81	운수 좋은 날 (현진건)	84
5	달밤(윤오영)	76	진달래꽃 (김소월)	77	토지(박경리)	74
6	구두(계용목)	75	향수(정지용)	74	옥상 위의 민들레(박완서)	73
7	권태(이상)	64	꽃(김춘수)	56	태평천하(채만식)	69
8	지조론 (조지훈)	59	농무(신경림)	55	광장(최인훈)	68
9	부끄러움 (윤오영)	59	타는 마음으로 (김지하)	53	수난시대(하근찬)	53
10	나무(이양하)	54	별 헤는 밤 (윤동주)	38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48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수록 제재가 교육공급자가 설정한 논리나 선호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록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 내용에 대한 소비자, 즉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사회 등의 선호도 조사도 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학생들이 ‘관동별곡’에 대해 지루해 하고, ‘산정무한’에 대해 따분해 하는 것을 학생들이 늘어놓는 의례적인 불평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의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무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궤적을 걸어 왔다.

- ① 8·15 광복 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여 쓰던 교수요목기
- ② 6·25가 끝난 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서 제정된 1955년의 1차 교육과정
- ③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족주체성과 경제발전이 강조된 1963년의 2차 교육과정
- ④ 유신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국민의 자질 함양과 총화 교육을 강조한 1973년의 3차 교육과정
- ⑤ 제5 공화국 때 경제 제일주의로부터 복지사회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방향에서 시행된 1981년의 4차 교육과정
- ⑥ 고도산업화, 국제관계의 다원화, 평화통일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1987년의 5차 교육과정
- ⑦ 국제개방화 및 정보화사회 등의 환경에서 도덕성, 공동체의식, 민주성, 창의성 등을 위한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 ⑧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연도별 적용시기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초등학교	1·2	3·4	5·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표 3>에 근거하여 1988년에 태어난 한솔이와 1992년에 태어난 다슬이가 학령기에 공교육을 통해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의 양상을 살펴 보자.

〈표 4〉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양상

연도 학생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솔 (88년생)	유1	유2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령 이후		
	5차		→		6차			→		←			7차				
다솔 (92년생)	학령 이전				유1	유2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6차		→		←		7차					→	

현재 공교육 학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유치원 과정부터 고교 3년까지 14년 동안 최소한 3개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받게 된다.

1988년에 태어난 ‘한솔’이는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5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6차 교육과정,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 1992년에 태어난 ‘다솔’이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받았으며, 2005년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이 2008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는 고1부터 8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이는 ⑥, ⑦, ⑧에 의한 교육을 받은 셈이며, 다솔이는 ⑦, ⑧에 의한 교육을 받는 셈이며, 이외에 8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국어 교과에 한정시켜 보자. 한솔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으로 삼은 국어교육을 받다가³⁾ 중학교 1학년부터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국어교육을 받게 된다. 다솔이는 초등학교 2학

3) “제 6 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학교급별로 다르게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 국어과가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임을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급별로 강조점을 달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중학교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균형성 유지를, 고등 학교에서는 언어와 문학 교육을 강조하였다.”(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그러므로 한솔이는 5차와 6차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육목표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년에 이전과는 상이한 교육목표를 표방하는 국어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또 다른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국어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3개의 교육과정은 상호 계열적이며 연계적인가. 교육과정 제정자들이 이전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전의 교육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교육목표의 개정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과정 별로 상이한 국어교육 내용 체계를 학습한 결과에 대한 검증도 시행되지 않았음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6차까지 있었던 '언어' 영역이 7차에 와서 '국어 지식' 영역으로 바꿈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언어' 영역으로, 중학교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으로 다르게 배운 '한솔'이에게 국어교육 측면에서 어떠한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있다는 점을 과묵한 탓인지 들어 보지 못했다.

III.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념을 위한 쟁점

1. 주체인가 객체인가 - 개별성과 보편성

서양 요리는 주방에서 완성이 되고, 한국 요리는 식탁에서 완성이 된다. 서양 요리는 주방장이 주방에서 온갖 재료에 양념을 곁들여 요리를 완성한 후 손님의 식탁에 내 놓는다. 반면에 한국 요리는 주방장은 기초적인 음식만 제공하고 최종적인 요리는 손님의 식탁 위에서 완성된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갖가지 반찬이 나온다. 손님은 밥+국, 밥+국+김치, 밥+나물+김치+국 등 밥상 위의 여러 가지 음식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조합을 하여 먹는다. 요리에 대한 손님의

취향과 솜씨가 결정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비빔밥이다. 주방장은 밥과 여러 가지 나물을 고추장과 참기름에 곁들여서 내놓을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손님의 책임이다. 같은 비빔밥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비비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어렸을 때 자기가 비빔 밥보다 어머니가 비벼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비빔밥을 그토록 맛있게 비비는 비결은 있는가? 없다. 다만 있다면, '적절히'다. 고추장은 '한 손갈이 못 미칠 정도'이고, 참기름은 '약간'이다. 각종 나물은 '골고루' 넣어야 한다. 일정하게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빔밥은 비비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양의 음식은 철저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되어 나온다. 스테이크의 익히는 정도도 손님은 주문만 할 뿐 주방장이 알아서 익힌다.⁴⁾ 식탁 위에 소금이나 후추, 소스 병이 놓여 있기는 하나 이것을 추가로 넣을 경우 대개 음식 맛을 망치기 십상이다.

한국 요리책에는 늘 '소금 약간', '간장 적정량', 혹은 '갇은 양념'으로 적혀 있는데 서양의 요리책에는 모든 재료가 mg 단위로 계량화되어 있다. 한국의 요리는 이른바 정형화할 수 없는, 매 식탁마다 달라지는 개별적인 요리이며 주제적인 요리이다. 반면에 서양의 요리는 손님이 객체화⁵⁾되고 메뉴에 적혀있는 대로 정형화되고 보편화된 요리이다.

4) 한국의 삼겹살을 먹는 경우와 비교해 보라. 주인은 고기와 갇은 야채만을 내놓을 뿐 고기를 익히고 야채를 곁들이는 것은 손님의 책임이다.

5)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협회(PEA)가 중심이 되어 1933~1941년의 8년간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실시한 '8년 연구(Eight-Year Study)'는 미국 교육의 객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경험중심의 교과과정 실험 및 대상이 된 학생의 대학 진학 후 성적 추적(追跡) 등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유형을 변형시켜 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목표의 명확화(明確化)와, 학생 자신의 주체적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평가 기술의 개발문제가 연구 과제로 제시되었다. 실험 결과 진보주의 교육이 학습자의 사고력·사회적 행동·학습태도 등은 개선하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종래의 의문을 해소하여, 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진보적으로 개선하여도 대학 진학 후 학업에 아무 지장이 없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훗날 미국 학교의 방임주의적 성향을 키웠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독자 개인이 갖는 권리이다. 한용운의 '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셋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일 수도 있다. 교육은 사회가 합의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독자 개인은 한용운의 '님'을 위의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권리는 용인된다. 그 정도의 개별적 해석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용인하는 한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님'을 '남'이라고 해석하거나 '놈'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 해석의 허용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권리는 교육의 장에서는 '오독'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오독'을 다스리는 방법은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독은 '오답'이 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독자를 굳이 일반 독자와 구분하여 학습독자라고 달리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는 '배움의 주체'가 아니라 '가르침의 객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자아, 세계, 신이다. 이 중에서 자아는 종종 주체를 지칭하곤 한다. '주체(主體)'의 영어식 표기는 subject이다. subject는 '주체'라는 개념 이외에도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라는 의미도 있다. 근대 철학에 이르러 주체가 인간, 특히 자아를 뜻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발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체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데카르트에서 시작하여 칸트를 거쳐 헤겔에 이르기까지 주체는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절대화된 주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인물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주체를 철저하게 사회적인 존재로 파악했던 것이다. 키에르케고르, 니체, 프로이트 등은 주체의 위기를 가속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들어

의 입지를 굳혔다. (김재춘·박소영 공역, 2002 참조.)

하지만 현재도 미국에서는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일수록 공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환경, 부모의 높은 참여율 등이 '좋은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과 숙제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커 과외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정도이다.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들은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통한 아이비 리그 진학의 열망이 곧 '유리 천장(glass ceiling)' 위를 거닐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주체는 이제 물질 토대, 무의식, 힘에의 의지, 언술 행위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세계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가 푸코, 라캉, 데리다 등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주체의 실종 내지는 주체의 죽음을 선언하게 된다.

주체[개별자]의 문제에 대한 규명은 '왜 사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으며, 객체[보편자]의 문제에 대한 규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소설 교육과 사회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거론⁶⁾하면서 주체와 객체(타자)를 화제로 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착안한 것이다. 문학이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삶의 문제, 즉 '왜 사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관점은 '문학교육'이 아니라 '문학 + 교육'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문학교육'을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전자의 예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 후자의 예가 많아지고 있다. 한낱 사소한 표기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문학교육론의 성과가 온축(蘊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학 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문학(작품)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읽힐 가능성이 많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작품이 수록된 텍스트(교과서)를 들고 인물이 어떻게 갈등이 어떻게 시점이 어떠하다 라고 주저리주저리

6) (강진호, 2004),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삶을 체험하면서 독자는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학교육에 말하는 주체가 곧 작품 속의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작중 인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학습독자로서의 주체, 즉 살아 숨쉬는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 시간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한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반드시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결국 리얼리즘 작품을 통한 사회성의 신장은 소설 교육에서의 주체와 타자 문제는 작중 인물로서의 주체와 타자가 아니라 학습독자로서의 주체와 타자여야만이 진정한 소설 교육을 통한 사회성 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열심히 받아 적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 교사는 ‘밑줄 짚악!’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이럴 때 학생들은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어떠한가. 그것으로 끝이다.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아무도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문학교육’이라고 붙여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된다. 문학이 단순히 학습의 대상이나 시험 범위 목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학에 내재된 삶의 여러 양상이 학습 자료로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 속에 체화(體化)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가르침의 객체’인가 아니면 ‘배움의 주체’인가. 이 문제는 교육의 보편성과 주체의 개별성 중 어느 국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먹는 객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식탁에서 요리를 완성하면서 먹는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주장이 온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주체와 객체가 온전히 합일된, 이상이 실현된 국면이라 될 것이다.

“우리 문학교실은 개성에서 보편으로, 보편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을 필요로 합니다. 집단적 사고로부터 우리 문화의 보편성을 공부하는 한편, 바로거기에서 개인의 개성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국어교육은 기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정재찬, 2004)

2. 지식인가 탐구인가 - 개념성과 활동성

몇 년 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시달리던 영국은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고 그 원동력으로 유별난 교육열을 지목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교육 현실에 관해 낱낱이 그리고 살살이 조사하였다. 보고서 작성 후 우리의 교육 관계자와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이 오늘날 한국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의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한결같이 자기네 교육 모델을 비판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 영국의 교육 모델을 본받자는 논문이 쏟아지는 것을 보니 의아하기 짝이 없다.’는 요지였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지금 대형 LCD 패널과 자동차를 생산해 내고 ‘겨울 연가’와 ‘올드보이’, ‘보이’를 만들어 낸 인적 자원의 대부분은 7, 8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교육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휘둘리던 시기였으며 맹목적 주입식 교육이 횡행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래가 없는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IT 산업이나 문화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IT 산업이나 문화 산업의 핵심은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다음의 진술은 지식에 대한 우리 교육계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등학생 티를 벗고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와 처음 배우게 된 시가 안타깝게도 김지하의 ‘새봄’이었으니……. 아무리 동요처럼 가볍고 쉽게 접근하려해도 결국 이 시에서 말하는 조화로운 삶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다. 아, 그래도 뻣뻣한 교복을 입고 고운 목소리로 아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선생님! 이 시의 주제는요,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그 주제가 맞다고 다들 얘기한다. 중학교에 갓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은 시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외워서 지식처럼 저장해둔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이다(김영혜, 2003: 45).

교육당국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주도의 탐구식 수업이 ‘머리로 외워서 지식처럼 저장’ 해두는 수업으로 전락되었음을 공표하는 선언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입식, 맹목적 암기식 교육에 대한 폐해에 대해 솔하게 지적받아 온 바 있다. 하지만 과연 지식은 ‘공공의 적’인가. 앞에서 말한 IT 산업과 한류의 주역들은 그 창의성을 어디서 습득한 것일까? 그들

이 이수하였던 공교육이나 대학에서도 창의성 교육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국민성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진단이다. 어쩌면 그토록 사갈시(蛇蝎視)하는 지식 중심 교육에 있지 않을까. 가령 미국이 1990년대 '뇌연구 10개년 국가계획'을 세웠고, 일본은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선언하고 산업구조도 지식산업구조로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특히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주도 하에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국가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중앙일보 2004-11-11)에서 지식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Bartlett에 의하면, 사고(思考)는 증거(證據)의 성격에 합치되도록 증거를 연장하여 증거에 들어 있는 간극(間隙)을 충전(充墳)하는 과정, 또는 간단하게 간극 충전의 과정(gap-filling process)이라 정의된다. 즉 책을 읽다가 책의 한 페이지가 찢어져서 없을 경우에 그 페이지의 바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고, 또 그 밖의 몇 가지 증거를 기초로 찢어진 페이지의 내용을 메워 넣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 독자가 확보해 놓은 증거는 일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은 사고 '활동'⁷⁾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탐구 활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과

7)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그 친구를 보지 못하던 동안의 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편지라든가 다른 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조차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현재 그가 나타내고 있는 특성, 즉 옷차림이나 모습, 태도 등과 그를 마지막 보았을 때 그가 나타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동안에 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Bartlett이 관심을 가진 사고의 한 가지 보기이다.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정보 - Bartlett의 말에 의하면 증거(evidence) - 가 필요하다. 위의 보기에서 그 친구가 그 전에 나타내고 있던 특성과 지금 그가 나타내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그 친구에게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사고'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 또는 증거를 이룬다. 그리고 위의 보기에서 그 증거에는 사고를 하여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간극(間隙 gap)이 있다. 그 전에 그 친구를 보았을 때 그가 나타내었던 특성과 그가 나타내고 있는 특성 사이에 있는 간극이 그것이며, 이 증거의 불완전성, 즉 증거에 들어 있는 간극이 있을 때 비로소 사고과정이 시작된다. 우리가 그 친구에게 그 동안 일어났던 일을 추측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곧 그 사태에 포함되어 있는 증거를 기초로 간극을 메우는 일(gap-filling)이다. (Frederic Bartlett, 1958: 107-111)

탐구를 동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상극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지식과 탐구의 대립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즘 시중에서 인기 있는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인 19단 암기법과 관련된 논쟁이다.

19단 예찬론자들은 인도가 정보기술(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저력이 수학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19단 암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한다. '2×3'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두 개씩 3번 먹으면 모두 몇 개를 먹게 되는 셈인가?'라고 묻는 것과 구구단 공식에 의해서 '이 삼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것의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19단을 외우게 되면⁸⁾ 그 효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순한 산수에 의한 계산보다는 일정한 원리를 습득한 후 이를 공식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학에서의 공식은 지혜의 축적이며 방법론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19단 외우기가 자칫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루하게 반복하는 암기식 학습법이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수학자들의 우려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수학이 정녕 필요한 학문이라면, 19단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전념하라고 수학자들은 충고하고 있다. 19단 암기법을 공식으로 외운다면 시간을 제한하는 속도검사를 치를 때 빠른 계산으로 검산할 여유를 확보하는 것은 큰 매력이 될 수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산의 신속성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며, 탐구 능력이나 창의력과 고등 사고 능력 증진이 저

8) 예를 들면 '1000-357'이란 문제를 계산할 때 일(一)의 자리에서 뺄셈을 할 때 모자라면 십(十)의 자리에서 빌려오고, 십의 자리에서 모자라면 앞의 큰 수인 백(百)의 자리에서 빌려와 계산한다. 하지만 19단식 공식에 의한 계산은 좀 다르다. 맨 끝자리는 10에서 빼고 나머지는 9에서 빼라고 한다. (All from 9 and The Last from 10.) 물론 백(100), 천(1000)같은 수에만 해당하는 공식이다. 이런 수에서 뺄가를 뺄 때는 무조건 마지막 끝의 1의 자리는 10에서 빼고(즉 $10-7=3$), 나머지는 9에서 빼라는 것이다. (즉 $9-5=4$, $9-3=6$). (조선일보, 2005).

해된다는 것이다(박경미, 2005 : 전준수, 2005). 요컨대 공식(公式)은 지혜의 축적이 아니라 사고의 무덤이라는 것이다.

문학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보자. 학생들에게 텍스트로 주어진 작품에 대해 인물과 구성, 사건, 문체 또한 작가의 삶, 창작된 시기 등을 탐구하여 하며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것을 '계산(計算)적 감상'이라고 한다면, 문학 작품에 대한 이미 공인된 작품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여 작품을 읽는 '공식(公式)적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에서도 공식적 감상을 타기(唾棄)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교육에서의 규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행 외(2000)은 문학교육관을 실체 중심, 속성 중심, 활동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 실체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가시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아 그 존재와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문학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을 말한다. 속성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문학의 특수한 성질에 두는 관점이다. 문학의 구체적인 모습인 개개의 작품 또는 그 집합보다는 문학을 이루는 본질에 주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 일반이라는 총체적인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활동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이라는 특성에 두는 관점이다. 문학의 문학다움을 문학 작품 자체에서 찾는 실체 중심이나 속성 중심과는 달리 문학은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성취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핌으로써 문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관점이다(김대행 외, 2002: 10-18).

김대행 외는 이 세 가지 문학교육관을 각기 개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관점이 통합될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학 작품 실체에 대한 접촉을 통해 문학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익힌 후, 이를 자신의 삶 속에 투영시키는 활동은 문학교육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만들어진(ready-made)'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making)' 탐구 활동에서 무게의 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할 것인가.

3. 기능인가 문화인가 - 효율성과 내면성

어느 환자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 의사가 얼마나 아프냐기에 “엄청나게 아프다.”고 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겪어 본 최악의 통증을 10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자신이 겪었던 통증을 생각해 보고, ‘한 8쯤 된다.’고 했다. 의사는 몇 가지 처방을 하고 계속 아프면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두통이 계속되어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어제에 비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두통은 계속되었지만 전날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6 정도 아프다.’고 했다. 의사는 어제와는 다른 처방을 내려주었다.

머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할 때, ‘엄청나게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⁹⁾으로는 의사에게 적절한 처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사는 통증을 수치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환자는 의사의 주문에 따라 자신의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였다. 의사는 꽤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통증의 정도를 짚어 내었다.

과연 우리 교육은 의사처럼 환자의 통증을 효율적으로 짚어내는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대학에서는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들이 미적분도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개탄을 하고, 기업에서는 4년제 공과 대학을 나온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지 못한다고 한탄을 한다. 공교육과 대학교육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별로 신통치 못하다는 진단이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식 기반’이라는 말도 교육의 효율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 기반’이란 지식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작용하는 새로운 기능적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지식기반사회란,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

9) 하지만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다.’와 ‘바늘로 콧속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호소는 병인(病因)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진술이다.

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¹⁰⁾

국가는 교육과정에 학교와 사회의 현재 수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 나타날 새로운 가치를 예견하여 후속 세대를 키워 나가야 한다.¹¹⁾ 그 결과는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성(educational effective)과 교육에 투입한 비용의 경제적 효율성(economical efficiency)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비용 - 고성능 체제라면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도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권위는 실추되어 사교육은 창궐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대체재로서 교육 이민과 대안 학교가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투자의 기대효과를 많이 얻지 못하고, 소비자도 학교 밖의 학습기회를 찾느라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래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socially sustainable)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환자의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의사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스스로 그런 기능을 갖추려 하고 있다.¹²⁾ 하지만 모든 사회적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 10) 이러한 의미의 지식기반사회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빈번히 사용되고, 최근에는 체계적인 이론서도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 1973)은 이미 1970년대에 산업사회의 후기적 징후를 지식기반사회라고 예견하였고, 그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947)가 근대사회의 후기적 삶의 양상을 전망하여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고 서술한 것과 특징상 유사한 관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돈희, 2004).
- 11) 교육과정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동양에서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3학과(문법, 수사학, 논리학) 4과(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와 다른 것은 시대적인 사회성(sociality)을 갖기 때문이다.
- 12) 모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데 학력 또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폭넓은 지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다'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까지 7단계를 두고 지원자에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4] 술을 마시고 자신있게 모범택시를 잡아탔다. 기사 아저씨와 정치, 경제, 스포츠 얘기 등을 나누고 엄청 친한 척 하다가 막상 내리려는데 지갑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그리 선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대학 입시나 각종 고시, 입사 시험 등과 같이 시험의 결과가 수험자의 진로에 영향을 가져오는 고부담(高負擔 high stakes evaluation) 시험은 인성, 창의성 등 수험자의 종합적 능력보다 지필 검사에 의한 기존의 학설과 지식에 대한 단편적 암기 기능을 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한된 시간 내에 치러지는 지필 시험은 맹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식의 정량(定量)이 아니라 정성(定性)을 평가하는 인성 적성 시험에서도 수험자는 출제자가 원하고 있는 답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을 하는 기법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의 목적을 온당하게 성취해 낼 수 없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근육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인턴제, 혹은 수습 사원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이것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아예 다른 기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를 경력 사원으로 스카웃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재 검증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교육을 고품질의 사회적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최고의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수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의 수용 인원과 제한된 시간 그리고 과도한 교과 내용을 염두에 둘 때 교육에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

떻게 하겠습니까?

- A. 택시 안의 핸드폰으로 집안 식구에게 돈을 들고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 B. 연락처를 주고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한다.
- C. 솔직하게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처분만을 기다린다.
- D. 각종 장기(성대 묘사, 차력, 표정연기) 등으로 아저씨를 즐겁게 해준 후 차비로 대신한다.
- E.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과 지하철 패스, 전화카드 등을 합쳐 낸 후 도리어 거스름돈을 요구한다.
- F. 빠른 주력을 이용하여 도주한다.
- G. 가지고 있던 친구 명함을 대신 주고 연락하라고 한다.
- H. 아저씨 은행구좌번호를 적어온다.

- 출처 :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SamSung Aptitude Test)

인사권자들은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폭넓은 대처를 측정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D, E 항목에 높은 평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은 교사 주도 수업이다. 교사 주도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다.”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며 외운다. 교사가 미리 알려두지 않으면 어떤 학생은 이를 환희의 노래로도 보고, 광복의 염원으로도 답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업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장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창의적인 문화 능력은 바로 이런 교육방법에 의해서만 개발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국어교육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기능’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어교육의 목표를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이라고 명시한 5차 교육 과정기에 있었던 일이다. 과연 언어가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의당 무엇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듯이 언어도 사용되기에 따라서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역기능의 예로, 우리는 국어교육이 정권 혹은 사회적 강자의 나팔수가 된 적이 있었음을 든다. 엄혹했던 60년대와 7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며 ‘총력 안보’,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를, 심지어는 ‘국민교육헌장’을 글자 수까지 외어야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결국 국어교육이 군사정권의 시녀로 봉사했던 시절의 추억이다.

이런 면에서 ‘국어교육’을 ‘효율성’과 관련 지우려는 시도 혹은 의도에 선뜻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국어교육을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서만 고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필경 국가 경쟁력 증진에 가장 역할이 큰 분야가 교과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윤사마’로 대표되는 이른바 한류 열풍 같은 것을 국가 경쟁력의 한 지표라고 본다면, 국어교육은 우선 순위에 있어 한참 뒤로 밀릴 것이 뻔할 일이다. 도대체 ‘한글’ 혹은 ‘한국 문학’이나 ‘관동별곡’이 ‘영어’나 ‘영미 문

학' 혹은 '세익스피어'를 압도할 방안은 도저히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올드보이'나 '빈 집'이 세계의 우수한 영화제를 휩쓸 때 서정주나 이문열이 노벨 문학상과의 거리는 아직 한참이나 멀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것부터 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학문, 특히 교과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물질주의적 명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교과는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관습상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 중등교육의 일환으로서 교과교육을 말한다고 볼 때, 중등교육은 경쟁력 측면에서 볼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험한 말이 남발하고 경제가 부실해진 것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창의적인 문화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당장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와인의 묵은 향을 기대해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4. 위계화인가 범주화인가 - 고정성과 유동성

“선생님, 진도 안 나가요?”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교과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며 던지는 질문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얼마나 성적위주의 진도에 얽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대의 학교는 보편성과 규범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교사와 수업을 철저히 통제한다. 특히 수업 진도(進度)는 학교가 교사와 수업을 통제하는 막중한 압력이다. 진도(進度)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교사가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량과 범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수업 진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태도가 달라진다. 진도는

평가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의 이수 여부에 따라 교사의 성실성이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도는 수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말하므로 진도는 교육 내용을 순차적이며 체계적으로 선정 배열해야 할 의무이자 필요성을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진도는 교육 내용의 위계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검인정)를 보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 18종 교과서 대부분이 상권에서는 '문학 원론'과 관련된 내용이, 하권에서는 '문학사'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과 하권의 학습 시기가 이미 정해져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문학사보다는 문학원론의 위계성이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는 즉 통시성보다는 공시성이, 과거에 대한 통찰보다는 현재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위계화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춘향전>과 <무정> 중에서 어느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인색한 비판론자들은 학습량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을 학습량 과다의 판단 준거로 삼았는가를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는다. 또 교육 내용의 '위계성'과 '계열성'을 말하면서도 지식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특수한 문제라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은 하나 담론이 넓고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흠이 있다.”(이인제, 2004).

교육과정 입안자의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비판론자들은 아무 것도 해 놓지 않으면서 때만 되면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잔소리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학년과 단원에 의한 교육 내용의 위계화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학교육과정의 체계화, 즉 학습 내용의 연계화와 위계화는 모두 작품의 선정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학습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지

가 발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지가 발달하는가. 또한 그 발달의 수준이 일정한가. 설령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한 학년이나 한 학급에서 다루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는 전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인지 발달은 13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의 방식처럼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되어 있는 것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같은 연령의 아이는 동일한 교육 내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연령의 아이는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인지 발달, 즉 절대적 연령층에 의한 인지 발달을 표준하고 계측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설령 인지 능력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위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라도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능 교과에서 다루는 정서의 발달도 절대 연령에 의한 계측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문학과 이러한 전제가 적용되지 않을까?(김중신, 2003: 155-156).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장도서 목록을 생각해 보자. 이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해당 학령에 읽어야 할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범주를 크게는 청소년 전체로 한 것부터, 각급 학교 학년별로 구분 짓는 것까지 있다. 심지어는 월별, 주별로 읽어야 할 책도 있다. 그런데 이들 목록의 특징은 제시된 작품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시기에 해당 작품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학급, 동일 학년에 동일한 작품과 동일한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교육 내용을 순환적으로 다루게 되는 방식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육 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범주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되는 '프리 사이즈' 교육인 것이다. 양말은 프리 사이즈이지만 신발은 각각의 크기대로 신는다. 신기한 것은 신발은 발의 크기에 따라 그 사이즈에 다르게 매겨져 있는데 양말만은 하나의 사이즈이다.

세세하게 학년별, 월별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정해 놓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이나 작품의 내적 체계성을 고려하여 볼 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초·중·고·일반 등과 같이 거시적인 층위에서는 체계적인 위계화를 채택하되, 학년, 학기, 월별, 주별과 같이 미시적 층위에서는 제시된 교육내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교육 내용의 범주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이는 문학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해당 학년 내에 일정한 작품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학습하기만 하면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신발의 크기는 고정적이지만 양말의 크기는 유동적이다. 끝없이 변화하는 학생들, 그리고 독자마다 그 감상 내용이 달라지는 문학 작품. 교육 내용을 고정화시킬 것인가 유동적으로 놓아 둘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판단할 때이다.

IV. 결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적 지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정지된 지식에 매력은 물론이고 정보원으로서의 가치조차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수많은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13)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은 교육 내용을 범주화하는 것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언어 영역은 통합 교과라고 하여 출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설령 다루어 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능히 해독해 낼 수 있고, 또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영역을 준비하기 위한 진도나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있는 계획을 세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중신, 2003: 157).

연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암기해야 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은 교육”에서 “살아 숨쉬는 교육”으로 바뀌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사와 학생 등 교육의 주체가 교육적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교육적 내용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설정과 고시, 그리고 교과서의 개발, 최종적으로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질 때의 시간적 간격을 생각해 보자.

삼성전자의 수출 이익이 연간 3조 6000억원 이라면 마법사 이야기라는 콘텐츠 하나만으로 해리포터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낸다. 판타지 소설로 잘 알려진 J R 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부가가치의 총량은 가히 천문학적이고 우리의 정보기술(IT) 산업 규모를 가볍게 상회한다. 한 개인의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문화가 국민의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한솔이는 고등학교 2학년, 다솔이는 중학교 1학년이다. 과연 이들이 10년 뒤에 한국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생산해 내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까.

그나마 6차 문학교과서(18종)에 수록된 작품의 수가 평균 83.8편이었던 것에 비하여 7차 문학교과서(11종)의 경우 208.6편에 이른다는 보고(윤여탁, 2003)는 적지 않게 위안이 된다.*

* 본 논문은 2005. 6. 23. 투고되었으며, 2005.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진호(2004), "소설 교육과 타자의 지평", 『문학교육학』, 2004년 봄호, 문학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1),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 김대행 외(2002),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 김영혜(2003), "중학 국정교과서를 다시 본다",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03년 봄호.
- 김재춘·박소영 공역(2002),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8년 연구 이야기』, 교육과학사.
- 김중신(2003),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 김중신·염은열·고지운(2001), "학교문학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2001년도 교과교육공동 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서』, KRF-2001-030-C00041, 학술진흥재단.
- 윤여탁(2003), "우리 시교육의 현주소를 말한다", 『시인세계』, 2003 봄호.
- 이돈희(2004), "지식 기반 사회와 교과서의 성격", 『교과서 연구』, 제 43호,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 2004. 12.
- 이인제(2004), "직관과 사실의 조응과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웹진, 2004. 11.
- 이흥우(1995), 『인지 학습의 이론』, 교육과학사, 1995.
- 정재찬(2004),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249-250. 도서출판 역락, 200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제 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 내용 적정성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1.
- 허경철(2004), "한국 교육과정의 이해와 논쟁-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4.
- 조선일보(2005), "수학의 나라 인도", 2005. 3. 7.
- 박경미(2005), "19단 열풍을 경계한다", 중앙일보, 2005. 3. 16.
- 전준수(2005), "19단보다 창의력이 문제다", 동아일보, 2005. 3. 20.
- Frederic Bartlett(1958), Thinking: An Experimental and Social Study, N.Y.: Basic Books. 1958.
- http://e.kice.re.kr/view.jsp?newsCode=NEW20041007004441333&cate_level=2&sec_level=2

〈초록〉

새 교육과정의 이념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

김중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한다.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성공적인가? 유감스럽게도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 않다.

첫째 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새 교육과정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은 '가르침의 객체'인가 아니면 '배움의 주체'인가. 이 문제는 교육의 보편성과 주체의 개별성 중 어느 국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먹는 객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식탁에서 요리를 완성하면서 먹는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만들어진(ready-made)'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making)' 탐구 활동에서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국어교육의 목표를 기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효율성과 내면성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와 관계된다.

당장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면적 성숙을 기대해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 국어교육의 내용을 위계화로 할 것인지 범주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어교육의 내용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와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위계화에서 범주화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른바 교육 내용을 프리 사이즈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신발의 크기는 고정적이지만 양말의 크기는 유동적이다. 끝없이 변화하는 학생들, 그리고 독자마다 그 감상 내용이 달라지는 문학 작품. 교육 내용을 고정화시킬 것인가 유동적으로 놓아 둘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판단할 때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국어교육을 “죽은 교육”에서 “살아 숨쉬는 교육”로 바뀌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학생 등 교육의 주체가 교육적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교육적 내용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새 교육과정, 개별성과 보편성, 개념성과 활동성, 효율성과 내면성, 고정성과 유동성

〈Abstract〉

Point at Issue Examination for Ideology Construction of New Curriculum

Kim, Jung-sin

Now, the curriculum changes.

I wish to examine about various point at issue connected with estimation and this about previous the curriculum. Unfortunately, the estimation about the former-curriculum is not so positive. First, A lot of problems are pointing between society member connected with the education. Second, verification was not achieved whether students who study course of study got some educational effect.

We should consider these points.

First, are the students the object of education or subject of studying? Two problems require that must decide that will emphasize which aspect better among universality of education and severalty of subject.

Second, new curriculum will taking a serious view which thing better of knowledge and research. The knowledge-centering consider knowledge for 'ready-made' passively. The research-centering consider knowledge for subject 'making' activityly. We should decide that must taking a serious view any thing better among this.

Third, we should decide whether will regard target of language education on function or culture. This is related with whether we will have to put which thing to the more center of efficiency and interiority.

Fourth, we should decide whether we will regard contents of language education hierarchy brazier or will do category brazier. It is that need that regard education contents as free size as arrive. Size of shoes is fixed, but size of socks is ambivalent.

We should concentrate language teaching in work which change "the

dead-education" as "the living-education" at visual point that must construct new curriculum.

【Key words】 New curriculum, severalty & universality, conceptuality & activeness, efficiency & interiority, fixation & fluidity